

광주·전남·전북 '메가시티 경제동맹' 과제 확정

호남권 분산 전원 통합운영 네트워크·전력계통 포화 대응 내달 '호남 메가시티 고속도' 국가계획 반영 국토부 건의

광주시·전남도·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가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했다. 광주시는 지난 20일 오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시·도의 상호 협력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를 영상회의로 개최했다.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실무협의회는 지난 7월4일 전북 정읍시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 공동선언과 우선 추진 사업에 대한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하기 위해 3개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직체다. 실무협의회에는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 전영평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사업 분야별 각 시·도 담당 실무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3개 우선 추진 사업인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에 대해 3개 시·도가 협의한 발걸음을 확정했다. 실무협의회에서 3개 시·도는 '호남 RE100 메가시티 조성'을 위해 우선 추진 과제로 '호남권 분산전원 통합 운영 네트워크 구축'을 선정하고 향후 호남권 전력계통 포화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에너지 분야 신규 과제

도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또 호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을 위해 고흥-광주, 광주-전주, 전주-세종 고속도로 구간 건설을 위한 공동 협력으로 남북축 고속도로 고도화를 통해 호남권 광역교통망 혁신을 이루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국가계획(2026-2030년)에 반영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고 우선 오는 10월 중 3개 시·도가 국토부를 방문해 공동의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호남 관광문화 주간 공동 개최는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해 2025년 9월에서 10월 중 개최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2025

년 공동 주간 필요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배일권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집중이라는 국가 질병에 대응하기 위해 상호 합의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한 시·도만의 의지가 아니라, 3개 시·도의 하나된 의지, 노력, 지혜가 필요하다"며 "실무TF에서 상호 협의와 실무협의회 의 논의를 통해 선(先) 경제 기능 통합 기지인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현범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절제절명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3

개 시·도의 협력은 큰 의미가 있다"며 "최우선으로 초광역 SOC, 에너지,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공동 발전 동력을 만들어 내도록 광주·전북과 폭넓게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영평 전북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호남권 메가시티 경제동맹을 통해 메가시티 고속도로 등 3개 시·도의 협력을 구체화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호남권 공동 현안 대응을 통해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상호 협력 관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박선강기자



독감 무료 예방접종 시작 인플루엔자(계절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광주 북구의 한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서 한 아이가 주사를 맞고 있다.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이고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접종은 다음달 11일부터다.

금지사, 호우 등 피해 신속 복구 강조

보성 버벌구·벼 도복 현장 살피며 피해 최소화 당부

김영록 전남지사는 22일 버벌구·호우 피해 현장을 살피며 신속 복구와 피해 최소화를 강조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지사는 이날 보성 북내면 버벌구·벼 도복 등 피해 현장을 방문, 신속한 복구 대책을 지시했다. 9월 중순까지 고온이 지속되면서 버벌구 발생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남지역에 평균 192.6mm 비가 내려 주

박 반과 및 침수 147동, 벼 도복 1천30ha, 도로 및 제방 유실 4개소 등 피해가 발생했다. 김 지사는 "쌀가격 하락, 버벌구 추가 방제에 따른 생산비 증가 등 농가 경영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비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버벌구 피해에 갑작스러운 호우에 따른 농작물 침수 피해까지 겹쳐 매우 안타깝다"며 "조속한 농가 피해복구와 신속한 방제로 피해 최소

화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1일 저녁 도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지사는 "최근 호우는 돌발변수가 많다"며 "주택 침수와 벼반도복 등 피해가 집계된 만큼 주택, 농업, 전통시장, 공공시설 등 전체적으로 피해 조사를 철저히 신속히 복구하라"고 지시했다. 김 지사는 또 "산사태 우려 지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이므로 호우 이후에도 예의주시하고 산사태 위기 경보 시 선제적으로 주민을 대피시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강조했다. /김재정기자

전남 노후산단 미래 신산업 육성기지 도약 박차

내년 정부예산안 산단 지원 분야 6개 사업 491억 반영

전남도는 22일 "2025년 정부예산안에 노후 산단 기반시설 정비, 진입도로 개설, 근로환경 개선 등 산단 지원 분야 총 6개 사업 491억원(총사업비 4천202억원)이 반영돼 신산업 육성기지 도약 발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 1분기 기준 전남지역 산업단지 총 107개소, 지정 면적 22만7천364㎡로 입주 업체는 3천884개, 고용 인원은 8만6천628명이다. 생산액은 약 3조3천 원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준공 27년이 지난 대불국가산단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492억원으로 도로 개보수 등 노후 기반 시설 정비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지난 해 12월 지정계획 승인 고시된 강진 제2

일반산단의 진입도로 개설 사업비 93억 원을 확보해 2027년까지 교통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노후 산업단지 근로환경 개선 및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 공모에도 6개 시·군 11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406억 원을 확보했다. 2027년까지 노후 산단에 청년문화센터 건립, 거리 조성, 공장 리뉴얼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산업구조 다변화 요구에 대응하고 탄소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광양만권 산단 대개조 사업(34개 사업·1조3천566억원)과 서남권 산단 대개조 사업(27개 사업·3천567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수국가산단을 거점으로 광양·울진제1산단과 여수·광양항을 연계한 광양만권 산단은 저탄소·스마트·고부가 소재·부품 산업기지로 조성한다. 또 영암 대불국가산단을 거점으로 영암 삼호, 해남 화원, 목포 삼진 일반산단을 연계한 서남권 산단은 친환경 중소형선박 및 해상풍력 기자재 산업 중심지로 육성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위광환 전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도 미래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산업단지 지원 분야 국비를 확보, 지역 일자리를 공급하고 지역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전기차 화재 예방 종합 안전대책 마련

전남도, 충전시설 지상 이전 등 대응력 강화

전남도는 22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 최소화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충전시설 지상 이전·설치, 화재대응키트 지원 등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기차 화재예방 종합 안전대책은 이달 6일 발표된 정부 정책과 연계해 화재 예방과 대응력 강화에 중점을 뒀

다. 섬 지역이 많은 전남의 특성을 감안해 전기차 해상운송 안전관리 방안도 마련했다. 분야별로 공동주택 전기차 관리 취약점 개선을 위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일제 점검 ▲지하충전시설 지상 이전 권고 ▲소규모 공동주택 '화재대응키트' 지원 ▲신축 건축물의 전기차 충전소 지

상 설치 기준 마련 등을 추진한다. 충전시설 안전관리 및 화재 대응력 강화 대책은 ▲화재 예방형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 ▲전기차 사용자 연 2회 안전교육 추진 ▲전기차 전용 진입장비 3종 확충 ▲전기차 화재 대응 현장훈련 실시 등이다.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도민 불안감과 갈등이 가중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남 여건에 맞는 분야별 전기차 안전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빌려준돈
공사대금	투자금
장비대금	약정금
전세금	임대료
부도어음	구상금

돈 받아 드립니다

유동 로타리 대로변 코너 최고요지 상업지228㎡

급매10억3,000 (면적 추가가능)

광주역 6차선 대로변 상업지 대지479㎡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주차6대 급매 14억9,000(커피카페,음식점,전시장등 묶음 최적)

광주역 코앞 상업지 대지534㎡ 6층1,145㎡ 승강기1 주차16 스프링클러, 병원기준완비, 의료장비도 비치, 병상7개 급매 26억8,000(조정가/임대가능)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금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기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 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 복사기
- 컴퓨터
- FAX
- 레이저 및 잉크젯 프린터
- 전산소모품
- 레이저(토너/드럼)
- 카드리지
- 각종 잉크류
- 복사용지
- 팩스용지
- 판매
- 임대
- A/S

T.375-5880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719-3380, 010-8678-4638